가정폭력이 집단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을 중심으로-

김 소 명　　현 명 호†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가정에서의 폭력 노출이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동이 가정에서 부모간의 폭력을 목격한 것과 자신이 직접 폭력을 경험한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 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이 개입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4-6 년생 386 명에게 폭력노출의 내용과 사회인지와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는 질문지를 완성하게 하였다. 그 결과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것은 사회인지를 통하여 가해행동과 연결되었다. 그러나 직접 폭력에 노출되는 신체학대는 정서조절을 통해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으로 연결되지는 않았고 단지 정서조절의 하위요인인 불안정성이나 조절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집단괴롭힘 행동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리고 폭력에 노출되는 형태에 따라 그 위험의 패턴도 다르다는 점과 집단괴롭힘 유형에 따른 차별화된 중재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집단괴롭힘, 사회인지, 정서조절, 가정폭력, 신체학대

아동에게 학교는 공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의 생활양식을 습득하는 곳이다. 특히 민주시민 사회에서는 계층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체라는 전제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후자의 의미가 강조된다. 즉 공동체로서 학교는 민주시민의 덕목을 배울 수 있는 훌륭한 공간이다. 그러나 때로는 학교라는 세계가 일반사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악영향을 아동에게 주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집단괴롭힘을 들 수 있다.

Olweus(1978)는 집단괴롭힘(bullying)을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집단따돌림(곽금주, 1999; 권준모, 1999; 이춘재, 곽금주, 2000)과 집단괴롭힘(강진경, 유형근, 1999;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 1999)이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다. 이중 집단괴롭힘은 사

* 본 연구는 "중앙대학교 연구기자재 구입지원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결과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er) : 현 명 호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 FAX : 02-820-5124 / E-mail: hyunmh@cau.ac.kr

회적 소외나 내적인 배제와 같은 간접적 따돌림 행위와 함께 폭행이나 구타, 위협과 못살게 굴고 놀리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Olweus, 1993)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집단따돌림보다 적절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집단괴롭힘은 아동에게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Smith, 1991), 다양한 심리적 부적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집단괴롭힘의 경험은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는 등교거부와 관계가 있고, 고학년 시기에는 학교 부적응, 등교거부와 무단결석, 폭력 등과 관계가 있다(Kupersmidt & Coie, 1985; Kupersmidt, Coie & Dodge, 1990). 또한 집단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는 중학생의 30% 가량이 정신질환 증후를 보이고, 폭행피행자의 41%가 복수를 생각하고, 10%는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고 표현하였다는 보고가 있다(중앙일보, 2001). 그리고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고독과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내면화된 장애를 보인 반면, 동료를 괴롭힌 경험이 있는 성인의 경우는 범법행동이나 폭력 범죄와 관련된 외현적 장애행동을 보였다(Kupersmidt et al., 1990; Magnusson, Sttatin, & Duner, 1983). 이렇게 집단괴롭힘의 문제가 학교와 사회의 중요한 관심으로 대두되었고 집단괴롭힘의 당사자도 피해아동 뿐만 아니라 가해아동과 가해/피해를 동시에 경험하는 아동으로 나누어 연구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집단괴롭힘은 사회경제적 지위나 학교위험도, 부모의 교육수준, 또는 가족 구조와 같은 사회적인 변인보다 폭력노출이나 공격성, 스트레스 대처, 자존감, 부모의 양육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변인으로 더 잘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2000; 이춘화, 1999; 이혜경, 김혜원 2000; Olweus, 1993). 그리고 이러한 심리적 변인 중에 특히 가정폭력, 또래 폭력, 매체폭력 등의 폭력노출은 집단괴롭힘 행동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이혜성, 1997).

특히 가정은 아동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곳으로서 그곳에서 주로 정서적 안정을 얻는다는 점에서 가정폭력에 대해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가정 폭력은 부부간의 폭력과 아동학대, 노인학대 등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이중 부부간의 폭력은 아동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사회 학습이론과 실험 연구의 결과를 보면 아동이 부부간의 공격성에 노출되면 공격적 행동을 한다고 한다(Bandura, 1973). 더욱이 부부간의 갈등상황에서 신체적 공격을 하는 부모는 부모와 아동간의 관계에서도 공격적인 경향이 있으며(Jouriles, Barling, & O'Leary, 1987), 부부간의 공격성은 아동의 다양한 문제와 연합이 되어 있다(Lamphear, 1985).

Dodge(1980) 는 아동이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하면 사회정보처리 또는 사회적 학습기제를 통해 폭력행동을 재생산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상황에 직면하여 그 상황에 관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사회정보처리 모델에 따르면, 아동은 생물학적으로 이미 결정된 반응능력, 과거 경험에 의한 기억이나 특정 목적 또는 이에 따른 반응양식, 그리고 환경으로부터 들어오는 일련의 사회적 단서 등과 같은 생물학적, 심리학적 조건을 지닌 상태로 특정한 사회상황이나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아동의 행동은 달라진다. 이러한 정보처리과정은 일련의 단계로 이

루어지는데, 각 단계는 모두 필요한 부분으로 어느 한 단계라도 결함이 있게 되면 적절한 반응을 하지 못한다.

Dodge(1980)가 제시한 사회정보처리 모델의 다섯 가지 단계는 다음과 같다 제1 단계는 부호화과정(encoding)으로 한 순간에 처리되어야 할 사회적 정보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적절한 단서에 주의를 집중하고 정보를 세분화하는 과정이며, 제 2단계 해석과정(interpretation)은 단서가 부호화된 후의 표상이나 해석과정을 의미한다. 제 3단계는 반응탐색과정(response search)으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상황에서 가능한 행동반응을 탐색 및 생성하는 과정이 일어난다. 이때 개인이 가진 반응생성 기술, 과거경험, 가능한 반응목록, 앞에서 일어난 처리과정이 이 단계에서 생성되는 반응에 영향을 준다. 제 4단계 반응평가와 결정과정(response decision)에서는 생성된 반응에 관한 잠재적 결과를 평가하고 효율적인 결과에 관한 확률을 계산하여 한 가지 행동반응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때 환경맥락, 자신의 행동능력, 가능한 결과에 관한 정신적 표상능력, 그리고 활동기억(working memory)능력을 동시에 고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면서, 과거의 경험이나 이전 단계의 정보를 잘못 처리하거나 혹은 평가기술이 없거나 발달되지 않은 결과 편파된 평가를 할 수 있다. 마지막 단계인 제 5단계는 행동수행(enactment)과정으로 여러 반응 중에서 최적의 반응을 선택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런데 공격적인 아동은 비공격적인 아동이 부호화하는 적절하고 유용한 단서를 모두 부호화하지 못한다(Dodge & Newman, 1981; Milich & Dodge, 1984). Finch와 Montgomery(1973)도 공격적인 아동은 특정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단서만을 찾아낸다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애매한 의도를 가진 또래의 도발상황을 간단한 이야기 형태로 제시해 주었을 때, 공격적인 아동은 그 동료가 적대적인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였다(Dodge, 1980).

폭력을 목격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즉, 폭력을 경험하면 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에 우선적으로 주목하게 되겠지만 목격하는 경우에는 도리어 폭력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결과에 주목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가정에서의 폭력사건은 아동에게 강력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아동의 사회적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신념체계에 변화를 줄 수 있다(Jenkins & Bell, 1997; Tolan & Guerra, 1998).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아동이 부부간의 폭력적인 상호작용을 목격하면 폭력행동을 대리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을 지지한다(Eron, 1997). 그리고 아동은 힘 있는 공격적인 모델을 통해 폭력과 긍정적인 결과들을 연합시키는 신념을 발달시키기도 한다(Perry, Perry, & Rasmussen, 1986).

가정폭력의 또 다른 형태인 아동에 대한 직접적 신체학대도 많이 연구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신체학대를 당한 아동은 공격적이고 충동적이며, 거부적이고 고립적이며, 과다한 행동을 보인다(권은주, 1978). 또한 정서적 학대를 경험한 5세 이하의 유아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으로 변하기보다 공격적이고 도전적으로 변한다. 그리고 학대를 당한 6-12세의 아동은 분노를 잘 일

으키거나 적대적이고, 수동적이거나 기가 죽어 있으며, 자기 파괴적이거나 또래관계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이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학대받은 아동의 60%이상이 반사회적인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김정준, 1986).

신체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권자영(1991)은 아동에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행동을 공격성, 사회적 위축, 신체증상, 정서 불안정, 강박-우울, 비행, 과잉행동, 성문제-정신병의 8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아동복지기관에 다니는 아동 중 신체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보다 사회적으로 위축되거나 과잉행동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아동기에 경험한 학대는 아동의 인성적 특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공격적 행동의 모델을 제공하며 강화시킬 뿐 아니라 그와는 전혀 반대인 정서적 위축이나 우울의 특성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인성형성에 있어 중요한 시기로 여겨지는 아동기의 학대경험은 그 아동의 타고난 성격적 특성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이주연, 1995). Schwartz, Dodge, Pettit 및 Bates(1997) 는 성인에 의해 학대를 당한 아동의 경우는 또래들에 의해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공격을 하기도 하는 이중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는 폭력적인 가정환경이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어 이상행동 및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와 아동의 사회적 부적응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Schwartz와 Proctor(2000)는 직접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정서조절(emotion regulation)의 붕괴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정서를 내적 반응을 조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론가들(Goldsmith & Campos, 1982, Thompson, 1994)은 정서조절이라는 개념을 중시한다. 정서조절이란 개인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정서적 각성을 조정하는 능력을 말한다. 아동에게 있어서 정서조절은 강력한 정서적 각성에 대처하고 조절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조절 능력은 아동이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며 또래집단과 상호작용 할 때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각성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준다(Shields, Ciccheti, & Ryan, 1994). 만약 정서조절에 결함이 있게 되면 행동억제의 결함(Derryberry & Rothbart, 1988)과 충동성(Goldsmith & Rothbart, 1991), 그리고 거부적 행동과 즉각적 공격행동, 또래에게 욕을 하는 행동 등을 보일 수 있다(Eisenberg et al., 1995; Shields & Cicchetti, 1998).

가정에서 폭력을 직접 경험한 아동은 정서조절에 결함이 있고, 그 영향이 지속적이라고 한다. 즉, 직접 폭력을 당한 아동은 종종 정서적 각성, 분노 조절과 흥분성을 그 핵심증상으로 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와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Kliewer, Lepore, Oskin, & Johnson, 1998). 그리고 이러한 아동의 정서적 특성은 강한 분노의 감정과 불안, 그리고 슬픔 등인데 이들은 모두 정서조절능력의 발달을 저해할 수도 있다(Osofsky, 1995). 이와 함께 정서적 각성을 야기하는 상황을 관리하는 문제중심적 대처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근래에 들어 정서성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competent)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이는 연구들이 많다.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집단의 규칙에 반응적(responsive)이고, 자신의 욕구와 다른 아동의 욕구 사이에서 조화를 잘 유지한다(Putallaz & Sheppard, 1992). 따라서 정서조절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규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집단괴롭힘은 학교와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로 대두되었으나 국내의 연구는 대개 집단괴롭힘의 가해나 피해정도를 조사하거나 가해나 피해의 구체적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는 등 집단괴롭힘 현상의 표면적인 특징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어왔다(나병현, 1996 ; 김용태, 박한샘, 1997 ;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1997). 그리고 집단괴롭힘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개인상담이나 집단상담을 다룬 연구(손진희, 홍지영, 양재혁, 1998 ;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 1998, 이시형, 1998)에서는 집단괴롭힘의 피해자가 갖는 특수한 배경과 특징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집단괴롭힘의 피해학생 뿐 아니라 만성적인 가해학생의 경우도 자해 및 자살위험도가 정상학생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으며, 가해 학생이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 경우 정상 학생에 비해 자해 및 자살위험도가 2.8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겨레신문, 2001). 또한 피해학생이 가해 학생으로 변화하는 등 집단괴롭힘 현상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으며, 가해/피해아동의 경우는 자존감과 정서 및 행동 부적응이 피해집단보다 더 심하고 가족관계가 매우 취약하다(한종철, 김인경, 2000).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가해와 가해/피해행동을 연구하는 것은 집단괴롭힘 행동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집단괴롭힘을 설명하고 예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가운데 폭력노출이라는 심리적인 변인이 집단괴롭힘 행동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이혜경, 김해원, 2000) 본 연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이 사회적 인지와 정서조절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 가해/피해행동으로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정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희생(victimization)과 폭력을 간접적으로 경험한 목격(witness)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폭력 노출 사이에 강력한 상관이 있다는 연구가 있지만(Kliwer et al., 1998), 폭력을 목격한 모든 아동이 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Martinez & Richters, 1993). 실제로 몇몇 연구자는 폭력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폭력을 목격했던 사람과는 다른 구성요인으로 이루어진 위험과 연결되어 있다고 개념화하였다(Jenkins & Bell, 1997). 이러한 연구와 일관되게 폭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단순한 목격에 비해 불안이나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상관이 더 크다는 것이 밝혀졌다(Martinez & Richters, 1993). 본 연구에서는 가정에서의 두 가지 형태의 폭력노출과 학교에서의 집단괴롭힘 사이를 잠재적으로 매개하는 연결고리의 기제로서 사회정보처리와 정서조절의 붕괴의 역할을 탐구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1. 참가자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은 서울시내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388명이었다. 이중 발달장애가 있는 2명의 설문지는 제외하여 총 386명(남학생 200명, 여학생 186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초등학교 4, 5, 6학년을 연구대상으로 표집한 것은 설문지를 통한 연구를 하는데 있어서 언어적 이해력를 감안하였기 때문이다.

2. 절 차

아동학대 척도와 부부갈등 질문지, 집단괴롭힘과 사회인지 척도를 묶은 질문지를 아동에게 집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무선 표집한 정상아동과 집단괴롭힘에 관여된 아동 모두에 대해서는 교사가 정서조절질문지를 이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3. 측정 도구

가. 신체학대 질문지

신체학대경험은 Straus(1979)의 갈등해결척도(Conflict Tactics Scale)의 폭력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모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빈도를 기록하게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70이었다.

나. 부부갈등 질문지

부부갈등은 Straus(1979)의 갈등해결척도(Conflict Tactics Scale)에서 부부폭력을 다룬 6개의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즉, 언어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78이었다.

다. 사회인지 질문지

사회인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회인지 스크립트(Social Cognition Script; Dodge, 1980)를 곽금주(1987)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상대방의 행동의도가 애매한 총 3개의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장면에 대한 피험자는 그 사람이 자신에게 적대적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고(판단 과정), 그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반응과정)에 대해서 응답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인지 질문지의 신뢰도 계수 α = .70이었다.

라. 정서조절 질문지

정서조절을 측정하기 위해 정서조절 체크리스트(Emotion Regulation Checklist; Shields &

Cicchetti, 1997)를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서적 불안정성, 강도, 균형, 유연성, 상황적 적합성과 같은 자기-조절의 측면을 4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조절질문지를 번역한 후 요인분석을 하여 고유가(eigen value)가 1 이상인 2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그것은 불안정성(lability)/부정성(negativity)과 조절(regulation)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었다. 이 요인에 속하지 않은 세 개의 문항(4, 5, 6)번을 제거하고, 원 저자의 분류와 일치하지 않은 7개의 문항(1, 2, 15, 16, 17, 19 문항)을 제외하여 총 2요인 13문항을 최종적으로 합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내적 일치도 α =.70 이었다

마. 집단괴롭힘 질문지

Olweus(1993)의 가해-피해 설문지(Bully/Victim Questionnaire)를 이춘재와 곽금주(2000) 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집단괴롭힘의 피해경험과 가해 경험의 정도와 빈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75 이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PSSWI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요변인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술통계치를 구하였고, Cronbach's α를 이용하여 척도의 신뢰도 값을 산출하였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과 사회인지, 정서조절, 집단괴롭힘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가정폭력이 집단괴롭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중재효과와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집단괴롭힘의 유형간에 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 과

1. 사회인지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과 부부갈등, 그리고 사회인지는 표 1과 같이 서로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표 1. 부부갈등, 사회인지,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간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

	부부갈등	사회인지	가해행동	평균	표준편차
부부갈등	-	.400**	.444**	1.89	2.31
사회인지	-	-	.640**	3.69	3.71
가해행동	-	-	-	2.27	2.67

**p<.01

부부갈등이 집단괴롭힘의 가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사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부부갈등과 중재변인인 사회인지를 투입한 후에, 두 변인의 교차항(부부갈등*사회인지)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갈등 요인과 사회인지가 종속변인을 설명한 후에 교차항이 투입되었을 때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사회인지가 부부갈등과 집단괴롭힘 간을 중재하는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2. 집단괴롭힘의 가해 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사회인지, 상호작용항의 회귀분석

	R^2	ΔR^2
부부갈등(A)	.198	.198**
사회인지(B)	.452	.254**
A*B	.452	.000

**p<.01

사회인지가 부부갈등과 집단괴롭힘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절차를 사용하였다. 이 방법은 세 개의 회귀방정식을 사용하여 표준화된 회귀계수를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부부갈등 요인을 투입하여 매개변인이라고 가정한 사회인지를 설명한 후에, 두 번째 단계에서 부부갈등 요인을 종속변인에 회귀시켰다. 마지막 단계에서 부부갈등 요인과 사회인지를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여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매개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첫째, 첫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독립변인이 매개변인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쳐야 하며, 둘째, 독립변인은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쳐야 하며, 마지막으로 매개변인은 세 번째 회귀방정식에서 종속변인의 분산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갈등에서 매개변인으로 상정한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친 영향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독립변인으로부터 종속변인으로 가는 회귀계수가 첫 번째 방정식보다 세 번째 방정식에서 더 적었다. 그러므로 사회인지는 부부갈등과 집단괴롭

힘의 가해행동간의 관계를 매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표 3. 집단괴롭힘의 가해 행동에 대한 사회인지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 계 / 종속변인	***Beta***
1 단계 :(독립변인 -> 매개변인) 부부갈등 -> 사회인지	.400**
2 단계 :(독립변인 -> 종속변인) 부부갈등 ->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	.444**
3 단계 :(독립변인, 매개변안> 종속변인	
1) 부부갈등 ->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	.224
2) 사회인지 ->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	.560**

**$p<.01$

2. 정서조절의 중재효과와 매개효과

표 4와 같이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은 신체학대와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r=.644$, $p<.01$, 정서조절과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r=.261$, *n.s.*. 그러나 정서조절의 하위 척도인 불안정성, $r=.407$, $p<.01$, 조절, $r=.434$, $p<.01$ 은 집단괴롭힘 가해/피해 행동 사이의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표 4. 신체학대, 불안정성, 정서조절,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의 상관 및 표준편차

	신체학대	정서조절	불안정성	조절	가해/피해	평균	표준편차
신체학대	-	.219**	.293**	.232*	.644**	3.37	2.68
정서조절		-	-	-	.261	15.54	4.69
불안정성			-	.507**	.407**	9.17	5.43
조절				-	.434**	6.37	2.40
가해/피해					-	4.98	6.45

* $p<.05$ **$p<.01$

먼저 정서조절이 신체학대가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에 미치는 정도를 중재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신체학대와 중재변인인 정서조절을 투입한 후에, 이 둘 변인의 교차항을 투입하고 종속변인을 설명하는 변량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신체학대 요인과 정서조절이 종속변인을 설명한 후에 교차항(신체학대*정서조절)이 투입되었을 때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을 부가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신체 학대와 집단

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 사이의 중재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표 5. 가해/피해 행동에 대한 신체학대와 정서조절의 효과

	R^2	ΔR^2
신체학대(A)	.644	.511**
정서조절(B)	.645	.513
A*B	.645	.002

**p<.01

신체학대와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에서 정서조절의 중재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개효과를 검증해 보았다.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정서조절이 신체학대에서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을 매개하였다고 할 수 없다.

표 6.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에 대한 정서조절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회귀분석

단 계 / 종속변인	***Beta***
1 단계 : (독립변인 -> 매개변인) 신체학대 -> 정서조절	.219*
2 단계 : (독립변인 -> 종속변인) 신체학대->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	.644**
3 단계 :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1) 신체학대->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	.644**
2) 정서조절->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	.039

* p<.05 **p<.01

집단 괴롭힘의 하위 유형에 따라 신체학대와 부부갈등, 사회인지, 그리고 정서조절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7과 같이 신체 학대, $F(3,90) = 14.89$, $p<.01$, 부부갈등, $F(3,90) = 8.88$, $p<.01$, 사회인지, $F(3,90) = 29.71$, $p<.01$, 그리고 정서조절, $F(3,90) = 11.15$, $p<.01$,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었다.

신체학대의 집단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를 보면 가해/피해집단과 피해집단이 가장 많은 신체학대를 경험하였고, 이어서 가해집단과 정상집단의 순으로 신체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갈등에 있어서도 가해집단과 가해/피해집단이 가장 많았으나 정상집단과 피해집단간의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회인지에 있어서는 가해집단이 사회인지의 왜곡이 가장 심하였고, 이어서 가해/피해집단과 피해집단이 뒤를 이었으며, 정상집단이 가장 왜곡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조절의 경우에는 정상집단과 다른 집단간의 차이는 없었으나 가해/피해

집단이 가해집단이나 피해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표 7. 집단괴롭힘 하위유형의 신체학대, 부부갈등, 사회인지, 정서조절에 대한 효과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신체학대	집단간	222.178	3	74.259	14.885**
	집단내	447.790	90	4.975	
	전체	669.968	93		
부부갈등	집단간	114.069	3	38.023	8.874**
	집단내	385.617	90	4.285	
	전체	499.713	93		
사회인지	집단간	638.077	3	212.692	29.708**
	집단내	644.349	90	7.159	
	전체	1282.426	93		
정서조절	집단간	556.394	3	185.465	11.151**
	집단내	1496.935	90	16.633	
	전체	2053.330	93		

** $p<.01$

논 의

아동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집단괴롭힘 현상은 헤켈이 "개체 발생은 계통 발생을 반복한다"고 말한 것처럼 성장과정에서 있음직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찍이 J. S. Mill이 "소수 혹은 한 개인에 대한 다수의 억압은 영혼을 파멸시킨다"고 말한 바와 같이 집단괴롭힘은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괴롭힘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괴롭힘의 예측변인으로서 가정폭력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사회인지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중재효과는 지지되지 않았고 사회인지의 매개효과가 지지되었다. 이러한 사회인지의 매개효과는 부부갈등이 사회인지의 결함을 통해 집단괴롭힘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있음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즉, 부부갈등은 사회인지 결함의 원인이 되고 사회인지 결함은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을 유도, 유지, 재발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가 자녀 앞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자녀가 후에 공격적으로 성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Olweus, 1977)와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에서 사후검증한 결과를 보면 집단괴롭힘의 가해아동이 다른 아동보다 사회인지에

결함을 크게 지니고 있었다. 이는 Schwartz 등(1997)과 윤진(1987), 그리고 곽금주(198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그리고 집단괴롭힘 가해아동이 폭력과 폭력 수단의 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Olweus, 1978)도 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부부갈등을 목격하는 자체만으로도 집단괴롭힘의 가행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사회인지의 변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부간의 갈등과 폭력을 목격한 아동들이 모두 가행행동을 보이는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서 폭력을 목격한 아동에게는 인지적 변화에 초점을 두는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에게 특별한 개입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에 대한 신체학대와 정서조절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아 중재효과는 지지되지 않았고 정서조절의 매개효과도 지지되지 않았다. 이는 직접적인 신체학대가 정서조절의 붕괴를 통해 또래에게 공격을 하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는 양가적인 양상을 보인다는 연구결과(Schwartz et al., 1997)와 일치하지 않는다. 즉, 신체학대가 가해/피해 행동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이것이 정서조절이라는 심리내적 변인이 중재하거나 매개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다. 정서조절은 가해/피해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얻어졌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신체학대와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은 상관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학대받은 아동이 수동적인 동시에 적대적이라는 연구(권자영, 1991; 이주연, 1995)와 학대를 당한 6-12세의 아동이 자기 파괴적이거나 또래 관계에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김정준, 1986)와 일치한다. 그리고 신체학대와 정서조절에 있어서도 두 변인간의 상관이 유의하였고, 정서조절의 하위유형인 불안정성(lability)/부정성(negativity)과 조절(regulation)은 신체학대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신체학대가 기질(temperament)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정서성에 영향을 미쳐 반응강도를 높이고 그러한 반응강도를 조절하는데 어려움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본 연구에서 정서조절이 신체학대와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을 매개하는 효과가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정서조절의 실패가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행동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며 집단괴롭힘의 가해/피해 행동에 개입함에 있어 정서조절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또래의 집단괴롭힘과 관련된 심리사회적 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학교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집단괴롭힘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예방적 차원에서 집단괴롭힘에 접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넓혀주었다. 우선 집단괴롭힘 행동은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에 의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단괴롭힘 가해와 가해/피해 행동에 대한 예방 및 대처를 위해서는 아동이 가정에서의 과다한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외에도 청소년의 학교폭력행동에 대한 지도와 예방을 위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통한 사회적 지원을 해야 한다. 폭력노출과 집단괴롭힘 행동간에 가족이나 친구의 지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혜경, 김혜원, 2000)를 볼

때,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도움을 증가시키는 것은 집단괴롭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대처방안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집단괴롭힘 이후 적응 증진이나 심리적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또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집단괴롭힘 가해행동은 부부간의 폭력을 목격하고 그러한 폭력의 목격이 사회인지의 변화를 일으킨 결과임이 이 연구에서 밝혀졌고, 선행 연구(Schwartz et al., 1997)는 집단괴롭힘 가해/피해행동은 아동이 직접적으로 신체학대를 경험하고, 그러한 경험이 정서조절의 결함으로 이어진 결과라는 것을 지지한다. 따라서 집단괴롭힘의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은 집단괴롭힘의 각 하위유형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해집단은 사회적 정보처리 모델에 근거하여 애매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해석을 내리고 비폭력적인 대안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해/피해집단의 경우 부적절한 행동을 줄이기 위해 고안된 환경적 유관(contingency)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지지적인 관계의 제공과 자신의 주의적, 정서적 과정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시킨 아동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력의 발생비율이 저소득층에서 높게 보고된다는 연구(Straus, Steinmetz, & Gelles, 1980; 김혜영, 1990; Trickett, Arber, Carlson, & Cicchetti, 1991)에 기초하여 중하류층이 사는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을 중심으로 2개교를 임의로 선정하여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모든 학생에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실제 상황에서 사회인지와 정서조절이 부부갈등이나 신체학대, 그리고 집단괴롭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장기종단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부부갈등이나 신체학대에 직면할 때 사회적 지지와 같은 변인이 완충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도 요망된다.

본 연구의 질문지는 아동과 선생님이 작성한 것으로 신체학대나 부부갈등과 같은 질문에 대한 아동의 반응이 객관적인 사실과 다르거나 초등학교 아동기의 특성으로 인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여름방학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질문지를 완성하여 한 학기동안 선생님이 아이들을 관찰할 시간을 가졌으나 선생님의 평가가 또래 아동의 평가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 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동에 대한 다차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강진경, 유형근 (2000). 집단괴롭힘. 학지사.

곽금주 (1987). 공격영화시청이 아동과 청소년의 사회정보처리 과정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곽금주 (1999). 학교폭력 및 왕따 예방프로그램 (1) :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5, 105-122.

권은주 (1978). 아동학대의 원인 및 대책에 관한 고찰 - 신체적 학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자영 (1991). 신체적 학대가 아동의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요보호 아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권준모 (1999). 학교폭력의 방법론적 관찰. " 학교폭력의 학술적, 사회적 대안". 1999년 한국심리학회 심포지엄 자료집, 27-40.
김용태, 박한샘 (1997). 청소년 친구 따돌림의 실태조사. 청소년 대화의 광장.
김정준 (1986). 교사가 인식한 영세지역 새마을 유아원 어린이의 학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준호, 박정선, 김은경 (1997). 학교주변의 실태와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혜영 (1990). 아동학대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 가출아동과 일반아동간의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나병현 (1996).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책. 입법조사연구, 238, 국회.
박영신, 김의철 (2000). 경제불황기의 실직자와 직장인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사회적 지원 :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 85-117.
손진희, 홍지영, 양재혁 (1998).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개발.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윤진 (1987). 폭력의 이론(공격행동의 심리적 기제). 정신건강연구, 6, 1-10.
이규미, 문영춘, 홍혜영 (1998). 상담사례를 통해 본 "왕따"현상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이시형 (1998). "왕따"현상에 대한 이해와 해결. 서울특별시 청소년 종합상담실.
이주연 (1995). 아동학대 유형에 따른 또래수용과 인성특성.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춘재, 곽금주 (2000). 학교에서의 집단따돌림 : 특성 및 실태 서울 : 집문당.
이춘화 (1999). 청소년폭력 가해자와 가해집단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99-R42.
이혜경, 김혜원 (2000). 폭력노출이 집단괴롭힘 가해와 피해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변인들과의 상호작용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 95-113.
중앙일보 (2001). 왕따 정신병 부른다. 피해자 30% 질환 중앙일보 1월 23일.
한겨레신문 (2001). 왕따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자살 위험률 정상학생 두배 넘어. 한겨레신문 10월 11일.
한종철, 김인경 (2000). 또래 따돌림과 심리사회적 부적응.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 103-114.
한종철, 이민아, 이기학 (1999). 초등학생의 집단괴롭힘 개입 유형과 심리적 특성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11, 95-108.
Bandura. A. (1973). *Aggression :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 Hall.
Baron, R. M., & Kenny, D. A. (1986). The moderator - 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1173-1182.
Derryber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Dodge, K. A. (1980). Social cognition and children's aggress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162-170.

Dodge, K. A., & Newman, J. D. (1981). Biased decision - 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375-379.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n, M. (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Eron, L. D. (1997).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ehavior from a learning perspective. In D. M. Stoff, J. Breiling, & J. D. Master(Eds.), *Handbook of Antisocial Behavior* (pp. 140-147). New York : Wiley.

Finch, A. J., Jr., Montgomery, L. E. (1973). Reflection - impulsivity and information seeking in emotionally disturbed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 358-362.

Goldsmith, H. H., & Campos, J. J. (1982). Toward a theory of infant temperament. In R. N. Emde & R. J. Harmon(Eds.), *The development attachment and affiliative systems.* 161-193. New York : Plenum.

Goldsmith, H. H., & Rothbart, M. K. (1991). Contemporary instruments for assessing early temperament by questionnaire and in the laboratory. In A. Angleitner & J. Strelau(Eds.), *Explorations in temperament* (pp.249-272). New York : Plenum.

Jenkins, E. J., & Bell, C. C. (1997). Exposure and response to community violence amo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J. D. Osofsky(Ed.), *Children in a violent society* (pp. 9-31). New york : Guilford Press.

Jourilies, E. N., Barling, J., & O' Leary, K. D. (1987). Predicting child behavior problems in maritally violent famili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65-173.

Kliewer, W., Lepore, S. J., Oskin, D., & Johnson, P. D. (1998). The role of social and cognitive processes in children's adjustment to community violen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6,* 199-209.

Kupersmidt, J. B., & Coie, J. D. (1985). *The prediction of delinquency and school-related problems from childhood peer status.* Unpublished manuscript, Duke University, Durham.

Kupersmidt, J. B., Coie, J. D., & Dodge, K. A. (1990). The role of poor peer relationships in the development of disorder. In S. R. Asher & J. D. Coie(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 274-305).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mphear, V. S. (1985). The impact of maltreatment on children's psychosocial adjustment : A review of the research. *Child Abuse & Neglect, 9,* 251-263.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Magnusson, D., Stattin, H., & Duner, A. (1983). Aggression and criminality in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 K. T. Van Dusen & S. A. Mendnick(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Boston : Kluwer-Nijhoff.

Martinez, P., & Richters, J. E. (1993). The NIMH Community Violence Project : II. Children's distress symptoms associated with violence exposure. *Psychiatry, 56,* 22-35.

Millich, R., & Dodge, K. A. (1984).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patterns in child psychiatric population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71-490.

Olweus. D. (1977). Aggression and peer acceptance in adolescent boys : Two short-term longitudinal studies of ratings. *Child Development, 48,* 1301-1313.

Olweus, D. (1978). *Aggression in the schools. Bullies and whipping boys.* Washington, DC : Hemisphere Press (Wiley).

Olweus, D. (1993). Victimization by peers : Antecedents and long-term outcomes, In K. H. Rubin & J. B. Asendor (Eds.), *Social withdrawal, inhibition, and shyness in childhood* (pp. 315-342). Hillsdale, NJ : Erlbaum.

Osofsky, J. D. (1995). The effects of exposure to violence on young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50,* 782-875.

Perry, D. G., Perry, L. C., & Rasmussen, P. (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U. Shantz & W. W. Hartup(pp. 330-355).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Schwartz, D., Dodge, K. A., Pettit, G. S., & Bates, J. E. (1997). The early socialization of aggressive victims of bullying. *Child Development, 68,* 665-675.

Schwartz, D., & Proctor. L. J. (2000). Community violence exposure and children's social adjustment in the school peer group : The mediating roles of emotion regulation and social cogni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670-683.

Shields, A., & Cicchetti, D. (1997). Emotion regulation among school-age children :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06-916.

Shields, A., & Cicchetti, D. (1998). Reactive aggression among maltreated children : The contributions of attention and emotion dysregulat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7,* 381-395.

Shields, A, Ciccheti, D., & Ryan, R. M.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and behavioral self-regulation and social competence among maltreated school-age childre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lgy, 6,* 57-75.

Smith, D. K. (1991). The silent nightmare : Bullying and victimization in school peer groups. *Bulletin of the British Psychological Society, 4,* 243-248.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78.

Straus, M. A., Steinmetz, S. K., & Gelles, R. J. (1980). *Behind Closed Doors ;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New York : Doubleday/Ancher.

Tolan, P. H., & Guerera, N. G. (1992). Societal causes of violence towards children. In D. K. Trickette & C. Schellenbach(Eds.), *Violence against children in the family and the community* (pp. 195-2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hompson, R. A. (1994). Emotion regulation : A theme in search of a definition. In N. A. Fox(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9(2-3, Serial No. 240).

Trickett, P. K., Arber, J. L., Carlson, V. & Cicchetti, D. (1991). Relationship of Socioeconomic Status to the Etiology and Developmental Sequale of Physical Child Abuse. *Developmental Psychology, 27,* 148-158.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on Bullying -Social Cognition and Emotion Regulation-

So-Myung Kim Myoung-Ho H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was aim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domestic violence exposure on peer group bullying. There will be difference between effect of witnessing and victimization of domestic violence, and social cognition and emotion regulation will mediate the effects. In order to determine that, a total 386 children were given self-report measures of the type and level of violence exposure, and social-cognition. Emotion regulation capacities were assessed by teacher. Analyses indicated that while marital conflict was associated with nonvictimized aggressive behavior through social cognition, physical abuse was not linked aggressive victim behavior. But physical abuse was correlated with lability and regulation.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domestic violence exposure is linked to bullying behavior, suggest that there are distinct patterns of risk associated with different forms of exposure. And bullying intervention must be differentiated by substyles of bullying.

Keywords : bullying, social cognition, emotion regulation, domestic violence, physical abuse